

# 農業系 大學教育의 현황과 정책과제

李 永 大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責任研究員)

## 1.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의 農業系 大學教育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농업계 대학이 지나치게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졸업 후 농업 관련직으로의 취업 정도가 낮다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그 개편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농업계 대학교육의 現況과 政策課題에 대하여 농림수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의 3년에 걸친 농업계 대학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1992년 전국의 농과대학에 대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17개 농과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 실린 내용의 전적인 것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농림수산부의 의견과는 무관함을 전제로 한다.

## 2. 農科大學의 교육현황

### 1) 농과대학과 학생수의 변화

농과대학은 지난 1970년의 19개에서 '81년 22개, '85년 26개, '91년 28개로 변화하였다.

연세대 학교 문리과대학의 낙농학과를 포함하던 29개이며 '93년 개교한 성화대학을 포함하던 30개가 된다. 국립대학은 '7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12개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은 '71년의 7개에서 '91년 16개로 증가하였다.

농과대 학생수도 '70년의 10,618명에서 '80년 27,227명으로 약간 증가하여 왔다. 그 후 1980년대 대학 입학정원의 증대에 따라 '92년 50,14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농업계 고교생수는 '70년 41,178명에서 '81년 55,10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급격 감소하여 '92년 37,809명으로서 농과계 대학생수가 농업계 고교생수에 비하여 더 많게 나타났다. 즉, 농대가 급격한 양적 증가를 한 것이다.

농과대 대비 농대의 과다 여부(외국과의 비교)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70년의 경우, 농과인구가 14,422천 명으로 총인구 32,241천 명(농과인구 비율 44.7%)일 때 농대수는 19개였다. '81년의 경우, 농과인구가 9,999천 명으로 총인구 38,723천 명(농과인구 비율 25.8%)일 때 농대수는 22개였다. '91년 농과인구 6,068천 명, 총인구 43,268천 명(농과인구 비율 14.0%)인 경우 농대수는 29개였다. 농림업 취업 인구의 비율이 '70년 49.5%에서 '81년 32.5%, '91년 16.0%로 계속 감소하는 데 반하여 전체

대학생에 대한 농과대학생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 2) 농과대학 학생 현황

현재 농과대학의 학생은 대학입학난으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관계로 농과대학에 대한 지원자수는 모집정원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11개 농과대학 조사 결과 '92년 입학생의 경우 평균 4.12:1). 그러나 한 월간 수험정보지의 3개 대학 농대생 1,016명에 대한 조사 결과, 자신의 희망이나 적성과 관계 없이 지원한 경우가 62.4%이고, 원해서 지원한 경우는 극히 낮았다. 또 '92년 본 연구원의 11개 농과대학에 대한 조사 결과, 농대생의 90%가 도시 출신이고 영농목적 입학자는 10% 미만이며, 농업계 고교 졸업자의 비율은 15% 미만이고 부모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역시 적다. 그에 따라 농과대학생 중 자진하여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이 타대학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 3) 농과대학의 명칭 변경

농업계 대학의 명칭 변경을 살펴보면 중앙대가 지난 '84년에 농과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칭하였고, '92년 서울대 농과대학이 농업 생명과학대학으로, 고려대 농과대학이 자연자원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들 주요 대학들이 농과대학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타대학도 따라서 명칭을 바꾸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92년 조사한 17개 농과대학 가운데 5개 대학은 명칭변경 계획이 있거나 고려중이고, 12개 대학은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각 대학이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과대학에서 다루는 학문영역이 점차 넓어져 기존의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학문의 영역이 과거의 토양학, 비료학 등에서 발효학, 미생물공학 등을 거쳐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등 생명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대되어 종전의 명칭으로는 大學의 實體를 나타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농'자가 붙은 기존의 이름으로는 신입생을 모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농과대학의 인기가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農業의 位相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농과대학의 명칭변경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농과대학 동창회나 농업전문가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명칭변경에 따라 무엇을 공부하는 대학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으며, 우리 사회의 農業 輕視 풍조에 교육기관까지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명칭뿐만 아니라 농업계 대학의 학과 명칭 변경 또한 뚜렷한데 '84년에 중앙대는 농업경제학과를 산업경제학과로, 지역사회개발학과를 지역개발학과로 변경하였다. '88년 서울대는 감사학과를 천연섬유학과로, '91년 고려대는 농학과를 식량자원학과로, 임학과를 산림자원학과로, 원예학과를 원예과학과로, 축산학과를 동물자원학과로 변경하였다. '92년에는 서울대가 임학과를 산림자원학과로, 임산가공학과를 임산공학과로, 축산학과를 동물자원과학과로 변경하였고, 전북대는 임학과를 산림자원학과로 변경하였으며, 충남대도 임학과를 산림자원학과로, 국민대는 임산가공학과를 임산공학과로 변경하였다.

## 3. 農大 敎育발전을 위한

### 研究 및 施策 동향

#### 1) 研究動向

이영대와 정명채에 의한 연구(1990)에서는 농업계 각급학교 교육기관 졸업생의 취농실태를 다루면서 지방 농과대학이나 농업전문대학이 지역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명채, 민상기, 이영대에 의한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1991)에서는 농대의 학교수, 학과수 및 학생수 변화, 영농 후계 인력 공급기능 및 문제점, 미래의 각급 농업계 학교의 역할 기대와 개편방안을 다루고 있다. 개편방안으로는 농업계 대학을 각 도에 1개 정도의 농과대학으로 통폐합하여 이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만들고 지역농업기술개발과 농업발전을 주도할 시험기관이자 연구·지도 인력 양성기관 확립을 주장하였다.

변형운 등에 의한 '농업정책의 현상분석과 앞으로의 정책과제'(1992)에서는 지방의 국립대학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발전을 위해 지방 국립대학을 활성화하여 활

용하너 지방 국립대학에 종합연구소를 설치한다. 종합연구소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에 관한 자연과학적 연구 및 경제·경영의 연구조사 활동과 교육훈련 활동, 현장방문 생산기술지도 활동, 현장방문 생산조직의 경영지도 활동, 해당지역에서 생산조직과 가공공장, 생산조직과 소비자조직과의 효과적인 연대 등을 통한 현장지원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주작물, 부작물 등 작목별 증자개발, 재배기술 및 새로운 농법개발, 농작업 기계 개발 및 효과적 기계화 작업체계 연구, 가공기술 개발, 운작 가능한 작부체계 연구, 협동·협업조직에 효과적인 경영 모델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기반조성 사업 연구·개발, 기타 지역특성에 맞는 농자재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윤호섭 외 2인에 의한 '농업인력의 확보유지 및 교육훈련방안에 관한 연구'(1992)에서도 농업계 대학교육을 다루고 있는데 개편방안으로는 농과대학의 통합운영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농업계 대학을 대상으로 농림수산부, 교육부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우편조사를 하였으며, 이 결과를 기초로 농업계 각급학교에 대하여 집중적인 시설지원(실험실습 시설의 현대화), 영농희망 재학생에 대한 지원, 교원에 대한 지원 및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편을 통한 체계적인 농장경영실습과 기술교육 실시방안을 제시하였다.

## 2) 政府 시책 및 계획

1992년에 발표된 농림수산부의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농어촌 발전 부문 계획)에서도 농업교육제도의 개선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농과계 학교의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습이 가능한 토지, 가축, 농기계, 부대시설 등을 지원해 나가고 교과과정의 조정과 농촌지도소에 의한 실습지원도 강화하여 농업생산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1992)으로 민주자유당은 농어업 계통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농촌진흥청의 각종 시험장과 농과계 대학의 산학협동 체계를 강화하

고 각 도의 농과계 대학을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농업연구센터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신정부의 新農政 계획 중 농업교육 제도의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농과대학의 통폐합과 국립농업과학센터(가칭)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즉, 각 도별 1개의 국립농업과학센터를 설립하고, 농업과학센터가 도내의 모든 농과대학을 흡수 통합하여 농업과학센터에서 농민훈련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1993년 1월에 발표한 '신농정을 위한 공약 실천방안'에서는 농과대학과의 산학협동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농과대학을 지역농업연구센터로 개편하려는 공약의 실천방안으로 현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산학협동기금사업 및 특정연구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주요 업무 보고(1993. 3. 31)에서는 농과계 학생 중 영농희망 지원자 전원을 예비후계자로 지정하려 하고 있고, 농수산계 대학 출신자 중에서 매년 100명 내외의 학사개혁농을 선발하여 6개월간 국내의 교육실시 후 경영계획에 따라 1억 원 정도의 종합자금 지원을 한다. 또 농과대학의 현대화 시설, 실습농장, 장비 및 기자재에도 집중 지원('93년 20억 원)할 계획으로 있다.

## 4. 農科大學 교육을 위한 政策課題

우선 농과대학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농과대학이 어떠한 시설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국의 농과대학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가 농대교육을 위하여 할 일에 대한 의견은 농과계 학생 특별전형, 시설 확충, 실험시설이나 장비 집중 지원, 연구 지원 확대, 교수 특별연구비 지원이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대를 위하여 할 일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영농희망자에 대한 재학중 영농장학생제도 도입 및 영농지망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교수 연수 지원(선진 해외 농업시찰 포함)이다. 둘째, 졸업생에 대한 지원으로 졸업후 영

농종사자에 대한 관리 철저, 영농정착자금 확대  
 용자 지원 및 정착학생들에게 농토를 장기적으  
 로 구입 및 대여, 졸업후 영농정착자에 대한 병  
 역특혜이다. 셋째, 대학시설 및 교육에 대한 지  
 원으로 적극적인 대학 지원, 정보의 상호교환,  
 농업기술자 교류확대,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정  
 보교환 및 공동연구 분위기 조성, 실습장 경비  
 지원, 첨단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실험실습  
 시설 확충 및 연구기자재 확보지원이다. 넷째,  
 교수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 능력자 선발 재정  
 지원과, 농대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으로 교  
 수 연수 지원(선진 해외 농업시찰 포함)이다.

농대 당국자가 농대교육을 위해 할 일에 대한  
 의견은 현장 실험실습 지도 강화와 체계적인 실  
 습교육 및 영농희망자 장학금 지급이다.

학생들이 농대교육을 위하여 할 일에 대한 의  
 견은 농민과의 대화, 농업발전에 대한 사명감,  
 농업에 대한 인식 재정립과 중요성 인식, 애착  
 심, 영농인에 대한 자부과 긍지 고취, 영농인으  
 로서의 자질 향상, 영농 종사에 도움이 될 과목  
 선택 이수, 능동적 활동 및 입학시 정착계획의  
 전제 등이다.

이상과 같은 농업계 대학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농과대학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농과대학의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시설확충, 실험  
 시설이나 장비를 집중 지원하고 실습장 경비를  
 지원하며, 첨단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실험  
 실습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농과대학의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적극  
 적인 대학 지원, 정보의 상호교환, 농업기술자  
 교류확대, 산학협동의 강화를 통한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교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연구 능력자를 선발하여 특별  
 연구비 등 재정지원과 선진 해외 농업시찰 등 연  
 수지원을 하며 농대의 연구여건 지원을 확대한  
 다. 아울러 교수업적 평가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 등의 활용으로 교수들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교육내용면에서는 특히 전공기초교육의 강화  
 로 자연과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산  
 학협동의 내실을 기한다. 학생면에서는 영농을

희망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도록 농과계 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현장실험실습 지도를  
 강화하며 체계적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등 확실  
 한 영농교육을 실시한다. 또 영농희망자에 대해  
 재학중 영농장학생으로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졸업후 영농정착자에 대하여는 병역특혜, 영  
 농정착자금 확대 용자 지원 및 정착학생들에게  
 농토를 장기적으로 구입 및 대여하는 등 졸업생  
 에 대한 지원을 하고 졸업후 영농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는 농과대학의 통폐합 방  
 법을 고려한다. 즉, 전국의 농과대학을 점진적  
 으로 통폐합하며 축소전문화한다. 통합되어지는  
 대학 내에 대규모 농업과학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농업교육 및 첨단 농업과학기술의 중심을 이루게  
 한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부는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연구센터로의  
 개편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원의 각종 시험장과의  
 협동체제 구축 및 기존의 사업을 강화하며, 지역  
 농업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 5. 맺는말

급격한 국제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농업계 대학교육의 획  
 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 주요방안은 농업계  
 대학의 소수정예화와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이  
 다. 그동안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농업계 대학  
 교육을 지원하였는데 이제부터라도 農林水産部  
 가 확실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반면에 농과대학은 우리나라 농업이 직면  
 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예 :  
 농업과학센터를 통한 지역농업문제 해결참여)이  
 요구된다. ■

### 〈參考文獻〉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농림수산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농  
 이촌 발전 부문 계획), 1992.  
 농림수산부, 『신정부의 신농정 계획 및 신농정을 위한  
 공약 실천방안』, 1993. 1.  
 농림수산부, 『주요업무 보고』, 1993. 3. 31.

민주자유당, 『제14회 대통령 선거공약』, 1992.  
 빈형운 등, 『농업정책의 원상분석과 앞으로의 정책과제』, 1992.  
 송해균, “2000년대 농과대학 교육의 개선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3권 제4호, 1991.12.  
 윤호심·박동규·이영대, 『농업인력의 확보유지 및 교육훈련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54호,

1992.  
 이영대·정명채, 『농촌인력의 체계적인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29호, 1990.  
 정명채·민상기·이영대,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51호, 1991.

<投稿案内>

『大學教育』 제67호('94.1.1 발간)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내 용

- ① 대학교육에 관련된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를 줄 수 있는 주제에 관한 논의, 각 학과의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해외 고등교육의 동향 소개,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으로 다음 칼럼에 해당하는 글
- ② 해당 칼럼 :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교수담론」

2. 분 량

- ①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 200자 원고지 45장 또는 55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시 7장 또는 8장(행길이 80, 행간 14로 하여 1장당 29행 기준)
- ② 「교수담론」 : 200자 원고지 20장 또는 25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실 경우 3장 또는 3장 반

3. 기 한 : 1993년 10월 10일

4. 고 료 : 200자 원고지 1장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제출처 : ① 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앞  
 ② 전화 780-7942, 783-3891, 팩스 780-8311

6. 참고사항

- ①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논단」의 경우, 반드시 200자 내외의 요약문이나 발췌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국한문을 혼용하지 한자를 제한하고 필요한 때에는 원어를 써 주십시오.
- ④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